

# 제주 버네쿨러 디자인(Vernacular Design)의 Ceramic Design적 재해석

- 제주옹기와 화산석의 활용을 중심으로 -

오창윤\*

<차례>

- I. 서론
- II. 버네쿨러 디자인의 이해와 유형분석
- III. 제주옹기와 화산석의 고찰
- IV. 제주옹기와 화산석을 활용한 Ceramic Design의 재해석
- V. 결론

## 국문요약

버네쿨러 디자인(Vernacular Design)의 의미는 지방적, 원시적, 토속적, 작가미상의 자연발생적으로서 비주류, 주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즉 공식적인 계획이나 의식적인 사고가 결핍되어 있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이다. 의미만을 생각하면 뒤떨어진 느낌이 들지만 오늘날의 디자인에서 발견할 수 없는 완벽성과 명료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디자인 생성이 단순히 진행된 것이 아닌 문화, 기후, 풍토 등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진화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연환경과 생활관습을 포함한 문화원형은 다양한 버네쿨러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디자인의 다양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여 토속디자인의 개념인 버네쿨러 디자인의

---

\*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교수

의미와 특성을 알아보고 버네쿨러 디자인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버네쿨러 디자인의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제주옹기와 화산석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제주문화의 전통성을 활용한 Ceramic Design적 재해석을 통해 제주 도자 디자인의 나아가야 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버네쿨러디자인, 제주옹기, 토속성, 화산석, 도자디자인.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제주에서는 디자인을 포함한 문화(文化)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제주다움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다양한 물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연구자에게 이 물음에 대한 궁금증은 제주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했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디자인(Design)이란 용어가 출현하기 이전에도 분명히 디자인적 요소가 있었다. 그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했다. 자료를 수집하던 중 버네쿨러 디자인(Vernacular Design)이라는 용어를 접하였는데, 이 용어는 한 지역의 지리적, 풍토적 자연환경과 민족적인 배경 아래 그 지역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습관과 자연스러운 욕구에 의해 이루어진 토속적인 양식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지니고 있는 제주에 있어 무한한 발전가능성 모색이 가능하단 판단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토속디자인의 개념인 버네쿨러 디자인의 의미와 특성을 알아보고 제주문화의 전통성을 활용한 버네쿨러 디자인(Vernacular De-

sign)에서 제주의 도자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대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크게 문헌연구, 분석, 작품연구의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문헌연구로는 버네쿨러 디자인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버네쿨러 디자인의 유형을 분석한다. 또한 제주옹기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화산석과 제주풍토에 대해 고찰하여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제주문화의 전통성을 담고 있는 버네쿨러 디자인을 활용한 도자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끝으로 도자디자인의 제안은 제주옹기와 화산석을 활용하여 본 연구자의 도자디자인적 재해석한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II. 버네쿨러디자인의 이해와 유형분류

### 1. 버네쿨러디자인의 개념

버네쿨러 디자인의 의미는 우리말로로는 토속이라고 하며, 사전적 의미는 ‘풍토의, 혹은 제나라, 본국, 지방의’란 뜻으로 정의되고 있다. 에드워드 루시 스미스(Edward Lucie Smith)는 그의 저서 “산업디자인의 역사(History of Industrial Design)”에서 좀 더 넓은 뜻으로 ‘지역적인 전통이 지니는 특성’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이희정, 1996: 4-5쪽).

버네쿨러(Vernacular)는 원래 교육에 의해 정제된 표준어에 대비되

는, 어떤 지방 고유의 일상 언어 혹은 사투리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후 문화적 대상물(Cultural object)에 나타나는 어떤 지역의 지역적 전통이 지니는 민속적 특성을 일컫는 표현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건축물에서부터 모든 도구와 시각 요소 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산업사회 이전에 이론적 배경 없이 단지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 지배되고 전수되었던 디자인을 의미한다. 즉 공식적인 계획이나 의식적인 사고가 결핍되어 있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이다. 형성되는 방식 때문에 비자각적(Unselfconscious)디자인이라 불리기도 하고 그 디자인의 전개와 속도가 매우 점진적이기 때문에 진화적(Evolutionary)디자인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버네쿨러 디자인은 한 지역의 지리적, 풍토적 자연환경과 민족적인 배경 아래서 그 지역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관습과 자연스러운 욕구에 의해 이루어진 토속적인 양식이다.

토속적인 양식은 유기적인 조형과 실용적인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디자인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현대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즉, 토속적이고 관습화된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사물들은 특정한 개인(건축가, 디자이너, 발명가) 등의 의지를 반영하기보다는 관습적인 방법과 생활환경의 지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또한 시각적 쾌감을 위한 조형보다는 노동량을 경감시키고 풍토에 적응하기 위해 실제 기능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어 온 결과이다. 그러므로 그것에는 소박하고 자생적인 미의식이 투영되어 있고, 생물학적 진화과정처럼 여러 대(代)를 거치면서 형태의 세련미와 사용과정에서 기능이 개선되면서 생태계에 유기적으로 적응하려는 인간중심의 디자인 전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성

### (1) 이론적 배경의 결여

버네쿨러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들 중 하나는 이론적 배경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자인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의 역사는 근대 디자인의 역사이다. 디자인에서의 근대(近代)는 봉건사회에서 시민사회로 전환되는 프랑스 시민혁명과 산업화를 통해 대량생산 체제와 대중사회를 이끌어낸 영국의 산업혁명에서부터라 할 수 있다.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시작된 디자인은 19세기를 거치면서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며 유럽사회 전체를 뒤흔들어놓았다. 대량생산 체계와 시민계급의 출현은 근대국가 체제로 탈바꿈시켰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서구 사회에서는 과거 봉건시대의 역사주의 장식미술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가히 혁명적으로 여러 가지 조형 양식들을 등장시켰다. 미국에선 고전적 건축방식을 탈피하여 기계 생산 시대에 걸 맞는 합리적 건축형태를 모색하였고 독일에선 독일공작연맹과 바우하우스<sup>1)</sup>를 통하여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장식 없는 기계미술을 완성시켰다. 이 근대화 과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미술의 조류들을 모더니즘(Modernism)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더니즘 디자인(Modernism Design)은 20세기 중반을 거치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보편성을 띠는 국제적 스타일로 정착되었다(김중균, 2008: 10-19쪽).

1) 독일공작연맹 : 1907년에 독일의 예술가, 기술자, 기업가가 협력하여 공업제품의 디자인향상을 목적으로 창설한 단체. 나치스가 한때 폐쇄하였으나 1950년에 재건하였다.

바우하우스 : 1919년 건축가 그로피우스를 중심으로 독일 바이마르에 설립된 국립 조형학교이다. 공업기술과 예술의 통합을 목표로 하여 현대 건축·디자인에 큰 영향을 끼쳤으나, 1933년 나치스의 탄압으로 폐쇄되었다.

서구의 디자인의 역사가 일정기간을 두고 전시기의 양식에 영향을 받으며 단계적으로 발전하였다고 본다면 우리의 디자인은 서구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근대화는 개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개항 이후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한 문물은 교통, 통신, 전기, 의료, 건축 등 생활양식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일제강점기, 전쟁, 군사정권기 등과 같이 매우 급격한 사회. 정치적 변동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유로 한국디자인은 역동적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문화가 쏟아져 들어왔고 비동시적인 것들이 동시에 들어왔으며 혼재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후 1960년을 전후로 본격적인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기 시작하여 산업화에 관목 할 만한 진전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디자인의 역사가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고 본다면 버네쿨러 디자인은 산업사회 이전, 즉 근대화 이전에 단지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 지배되고 전수되었던 디자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 (2) 점진성

버네쿨러 디자인은 일상 사회,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의 지방성에 의해 풍토적 조건과 순응하며 형성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 의한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이므로 학문적, 이론적, 미학적 틀이 없다. 따라서 디자인문제와 해결안이 보여주는 배경이나 모델은 없으나 시행착오와 수정의 경험 그리고 특정 재료와의 밀접성에 근거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프로세스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수정의 경험 즉각적인 프로세스 피드백에 의한 버네쿨러 디자인의 변천과정은 수세대에 걸친 점진적 발전의 결과로 무

의식적이고 직접적인 패턴을 이룬다. 또한 전통적 관습, 규율, 금기 등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뚜렷한 풍토적 색깔을 나타내며 독창적 디자인을 보여준다. 공식적인 계획이나 의식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으나 그가 속한 지역의 문화, 기후, 풍토에 반응하여 태동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조형언어를 반영한다. 따라서 현대디자인에서 발견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완벽성과 명료성을 갖는다.

### (3) 전통성

전통성은 세대를 거쳐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인 배경과 지형, 풍토에 의해 독특한 조형양식을 형성하면서 뚜렷한 풍토적 색깔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는 그 지역 특유의 전통성을 내포하게 된다.

### (4) 익명성(匿名性)

버네쿨러라는 용어가 디자인에 적용될 때에는 아카데미한 실습이나 특별한 이념 또는 고도의 기술 없이 이루어진 디자인을 총칭하며, 의식적인 사고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관계없는 일상적 개념이나 관습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익명성을 지니며, 그 사례로는 전통적인 도구나 무명의 공예가에 의한 가구 및 생활용품 등이 있고 또 무명의 건축가에 의한 토속주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버네쿨러 디자인은 지역적인 가옥 유형이나 스타일로 나타나거나 그 지방고유의 재료와 전래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그 지방 사람들에 의해, 그 지방의 지리적이고 기후적인 조건에 순응할 수 있는 풍토적인 조형물이 탄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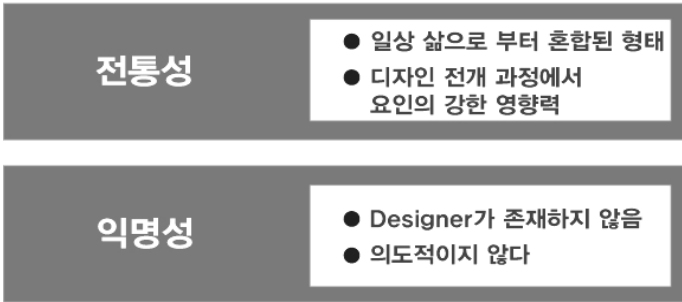
어떤 디자인이 전문 디자이너에 의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개발되지 않았으면 일단 그 작업의 결과는 버네쿨러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의 디자인은 대부분의 경우 설계가가 실명화 되어 있거나 추적 가능하며, 그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사회적 및 도덕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버네쿨러 디자인은 그것이 공간이든 제품이든 간에 그 지역사회의 집단에 의해 발전되고 세련화 되어가는 과정을 거친 것이므로, 설계에 대한 책임 요인을 찾아내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관습적인 방법에 의해, 세대를 넘어, 자연발생적이고 생물학적인 진화과정을 거쳐, 그 집단 내에서 모종의 표준을 형성한 경우이다. 이 무명의 디자이너들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건축물 자체의 한계성과 표준화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오늘날의 디자인이 개인의 이득과 진보를 추구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를 도외시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다. 무명 디자이너들의 철학과 지혜는 우리가 집착하기 쉬운 경제적, 미학적 중요성들을 능가하는 것이었으며, 현대사회의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디자인 영감을 던져주는 또 하나의 미개발된 원천이다.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성은 <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1〉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성

이론적 배경의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습, 전통에 의해 지배</li> <li>● 근대화 이전 이론적 배경이 존재하지 않음</li> </ul>
점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세대에 걸친 점진적 발전</li> <li>● 시간이 흐르며 수정 보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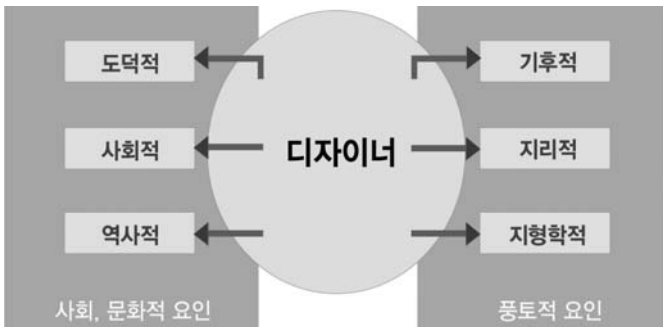


### 3. 버네쿨러 디자인의 요인과 유형

#### (1) 사회, 문화적요인과 풍토적 요인

디자인은 디자이너 스스로의 작품의지와 정신세계를 담아 작품을 행한다. 그러나 디자인된 사물 안에는 의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이너에게 체화된 사회, 문화적 요인이나 풍토적(지리적, 기후적, 지형학적)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표2>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어떤 요인에 더 중점적 영향을 받았는가에 따라 디자인된 사물의 성향은 달라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사회 문화적 요인과 풍토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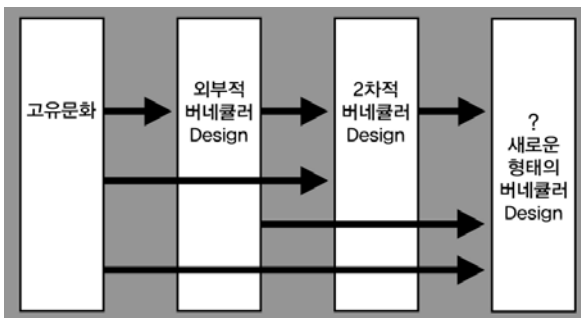
(2) 본래의 버네쿨러와 변형된 버네쿨러

모든 예술은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디자인에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것은 확일적이고 단편적인 전통의 계승이 아니라 현대에 적용시키는 모던화의 시도이다. 디자인에서 아이덴티티의 표현은 그 문화에 내재한 기질과 성향의 표현이며 디자인이 그 국가, 혹은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내포한다는 뜻이다.

고유문화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외부적 베네쿨러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오늘날 외부의 베네쿨러의 유입은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부의 영향을 받은 고유문화는 변화되어 새로운 이차적 베네쿨러를 창출한다. 시대가 변모하면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고 베네쿨러적 요소들도 전통 그대로의 계승이 아니라 선택적 흡수를 통해 변모되고 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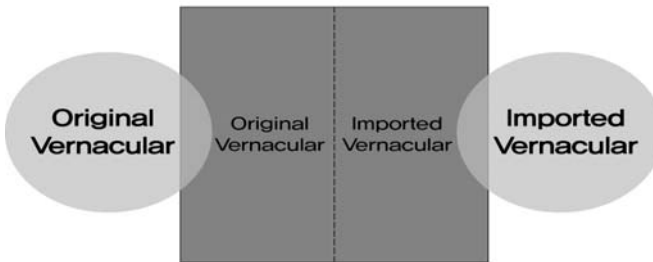
디자인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고유의 문화, 풍토성에만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은 여러 외부적인 베네쿨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이 탄생한다.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족 고유의 요소가 가미된 현대적 디자인이어야 한다. 그러한 디자인은 이차적 베네쿨러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디자인의 전통이 새롭게 변환되며 이어지게 될 것이다.<표 3>

<표 3> 본래의 버네쿨러와 변형된 버네쿨러



버네쿨러 디자인 원형인 정신(Original)이 존재하는 가운데 환경이 변화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외부 버네쿨러 디자인이 들어와 토종인 전자를 밀어내고 이차적 버네쿨러 즉 현대(Imported)를 만들어 낸다.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성에서 버네쿨러는 시간이 흐르면서 수정 보완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전술한 바 있다. 이 수정 보완의 과정에서 버네쿨러적인 전통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다. <표 4>는 고유의 버네쿨러(Original Vernacular)디자인과 외부의 버네쿨러(Imported Vernacular)디자인이 만나고 교류함으로써 새로운 버네쿨러 디자인이 형성됨을 보여준다. 좌측에 공통분모인 고유의 버네쿨러(Original Vernacular)가 교류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버네쿨러 디자인이다.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어 이차적 버네쿨러 디자인이 계속 변화됨으로서 고유의 버네쿨러 디자인으로 요소들을 현실에 맞게 변형시키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체화되어 고유의 버네쿨러 디자인으로 정착되는 매커니즘을 갖는다.

<표 4>버네쿨러 디자인의 유형분류



### Ⅲ. 제주옹기와 화산석의 고찰

#### 1. 제주도자문화(제주옹기)의 이해 및 특징

어떤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과 생활관습을 주제로 한 버네쿨러 디자인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성과 고유성을 부각시켜주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들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이끌어낸다. 이런 인간의 모든 구축행위는 특정한 지역과 시대에 따라 고유문화를 형성하며 그 시대의 지역적 문화요인과 생활양식은 구축물에 반영된다.

제주도의 문화원형은 기본적으로 한국문화의 한 부분이면서도 나름대로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맞게 형성되어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와 풍속을 형성해 왔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변화하며 전승되는 것이다. 제주의 도자문화 역시 이런 시·공간적 변화를 통하여 전승되어져 왔으며 제주라는 고유성을 지닌 독특한 문화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주의 도자문화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구체적인 도자문화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것이고 제주옹기의 버네쿨러적 특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제주도자문화의 발전과정

제주의 도자문화는 신석기토기<sup>2)</sup>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지질 구조의

---

2) 제주도는 우리나라 신석기 토기의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고산리식 토기가 발견된 곳이다. 이 고산리 유적은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원류와 그 문화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유적으로 1996년 후반에 빗살무늬토기가 수습된 이래 현재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고산리 단계의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제주에서 발견된 최초의 토기는 고산리식 원시무문토기(原始無文土器)와 융기문(隆起文)토기이다.

영향으로 자기가 생산되지 않았고 17C 후반(조선 중기)경부터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제주점토를 이용하여 제작, 사용하였다. 이 시기에 제작된 도예문화는 1200℃내외의 용기였으며 현재까지 자기생산에 관한 기록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제주의 도자문화는 제주용기로 이해된다.

내륙지방(육지부)의 도자문화는 신석기시대의 토기를 시작으로 청동기, 철기,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며 전 시기의 제작기술이나 양식을 계승하며 발전되어 왔다. 제주도는 신석기를 시작으로 청동기 철기를 거쳐 탐라국시대의 토기를 거쳐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특이한 점은 통일신라시대인 탐라국시대에 내륙지방은 고회도의 고온토기가 제작되었고 제주에서는 고온의 토기가 생산되지 못하고 단절되어졌다는 점이다.<sup>3)</sup> 단절된 제주의 도자문화는 탐라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내륙에서 생산된 자기가 일부 수입되어 사용되었고 조선중기경부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기들이 다량 제작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주용기 기술 유입 경로는 전라도의 용기 제작기술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과거에 다양한 생활용기(生活用器)들이 들어온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용기제작 기법이 전라도 용기의 제작기법과 유사한 점이 많이 남아 있으며 제주에서 용기가 생산되기 전에 전라도 강진군 칠량면이나 경남고성등지에서 생산된 육지의 용기들이 배에 실려 강진을 통해 제주로 유통되어졌던 이유에서이다. 이렇게

---

고산리석 원시무문토기는 태토에 가는 풀잎 같은 식물을 섞어 보강제로 사용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이다(국립제주박물관, 2005: 18쪽).

3) 단절된 이유를 제주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생긴 점토의 문제로 보고 있으나 현재 1200℃전후로 소성되어지는 모습을 본다면 단순히 점토의 문제가 아닌 생산기술, 제주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입된 옹기기술은 점차적으로 제주라는 환경에 적응하며 제주만의 독특한 옹기를 만들어가게 된다. 또한 집집마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옹구로 제작되어 제주사람들의 삶 속에 숨겨진 정수라 할 수 있다.

활발하게 제작 되어 사용되던 제주옹기와 원천기술은 1948년 4.3사건의 영향, 플라스틱 옹기의 출현, 식생활의 변화, 현대화의 바람과 맞물려 70년대 초 역사 속으로 점차 사라지는 결과를 만들었다.<sup>4)</sup> 과거 옹기업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은 감귤농사와 다른 업에 종사하게 됐고 이후 제주 돌가마를 비롯한 옹기관련 유적들은 농업구조의 변화(귤농사)와 도로공사, 시간에 흐름 등에 의해 많은 곳이 사라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보존이 양호한 몇몇의 가마가 남아있어 몇 년 전 제주도 기념물 제 58-1호(구역리 석굴 노랑굴)와 58-2호(검은굴)로 각각 지정 보호되고 있다는 점이다(오창윤, 2010: 12쪽).

20여 년 동안 제작하지 못한 제주옹기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몇몇 전통옹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제작되어지고 있다. 1990년에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대정농공단지 속에 제주도예원이 만들어진 것을 시작으로 기계로 대량 생산한 토기화분을 제작하던 제주옹기마을이 다시 옹기제작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0년대 제주돌가마 도

4) 이 시기에 옹기와 원천기술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 이유는 위에 서술한 이유도 있었지만 제주옹기 제작 및 운영방식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옹기제작은 철저하게 분업에 의해 세분화되어 작업이 이루어졌다. 기물을 성형하는 대장(도공), 토립(토래미)를 만들고 기물을 관리하는 건애, 굴(가마)에서 기물을 소성하는 불대장, 가마축조를 맡아 하는 굴대장 등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굴(가마)의 운영은 마을 단위로 굴계(굴제)를 형성하거나 조직을 이루어 운영되었다. 이런 체계로 옹기 제작이 이루어지면서 70년대 초 옹기제작이 단절된 시기를 즈음하여 각각의 전문화된 영역에만 집중하여 작업하다보니 어느 한 영역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옹기제작을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현대화의 바람과 맞물려 제주옹기의 단절로 이어진 것이다.

예연구소(2002), 검은굴(2007)이 각각 만들어져 사라졌던 제주옹기 제작에 맥을 잇고 있다. 또한 1998년 제주대학교 허민자 교수를 중심으로 제주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제주옹기문화연구회가 창립되어 제주옹기관련 워크샵과 전시를 통해 제주점토와 옹기의 우수성, 옹기 문화를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오창윤, 2010: 12-13쪽).

이런 작은 의지들과 노력으로 인해 제주옹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으며 2008년 (사)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가 결성되고 2010년 제주옹기박물관의 개관은 현시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사)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를 주축으로 한 “제주옹기 명품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 옹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중 생존해 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며 나이도 70-90세로 현재 실질적으로 작업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 14호 제주옹기장의 지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더 늦기 전에 과거 제주옹기에 대한 녹취사업 및 자료정리가 시급하다 생각된다.

## (2) 제주옹기의 버네쿨러적 특징

제주옹기는 잿물(유약)을 입히지 않고 돌가마(石窯)로 구워 자연유(自然油)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윤기가 있는 붉은색의 오지그릇과 낮은 온도에서 연기를 침투시켜 그릇표면이 검회색을 띠는 질그릇(지새그릇)을<sup>5)</sup>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오창윤, 2011: 64쪽).<sup>6)</sup> 즉 제주옹기의 성립

5) 지새그릇은 제주에서 질그릇을 부르는 말로 “검은굴”에서 소성되어진다.

6) 옹기의 대한 정의는 여러 문헌에 남아 있으나 제주옹기에 대한 용어는 따로 정의되어 사용된 것이 없다. 제주옹기는 옹기의 범주에는 속하지만 제작 과정과 표면의 느낌이나 내륙이 옹기와 많이 다르며 옹기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제주옹기의 개념은 옹기의 개념과 제주옹기의 특징을

에는 돌가마가 있어야 하며 소성과정의 변화성에 의한 요소들에 의해 제주옹기의 특징이 생성된다 할 수 있다.

제주옹기 제작에 사용되는 가마는 옹기를 구워내던 노랑굴<sup>7)</sup>과 질그릇(지새그릇)을 구워내던 검은굴이 있다. 가마 크기와 구조는 조금씩 다르나 두 가마 모두 돌(다공질의 현무암)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돌가마(石窯)는 통가마이며 자연 경사를 이용하여 노천에 만들어졌고 13-20°안팎의 자연경사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돌(현무암)을 가지고 가마를 축조하는 것은 열 손실이 많은 것은 흠이었으나 제주점토가 불힘이 약해 오히려 열이 알맞게 손실되는 편이 유리했다고 과거 불대장<sup>8)</sup>들은 설명하고 있다(허민자, 2005; 오창윤, 2007: 50쪽).

제주옹기의 특징은 철분(Fe)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흙을 사용한다는 것과 내륙의 옹기제작과 달리 유약(잿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통가마 형태인 돌가마(石窯)에서 소성되어지는 것, 소성재료가 나무장작만이 아닌 나뭇가지 묶음을 사용한다는 것 등이다. 유약(잿물)을 입히지 않고 소성을 하게 되면 나뭇가지가 타면서 재가 기물 표면에 남아 부분적으로 윤기가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또한 제주흙은 철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자연 발색이 좋으며 미묘한 온도 차에 의해서도 다양한 색상을 보이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돌가마에서 섬피(나뭇가지 묶음)로 소성하게 되면 일반 장작으로만 소성하는 것에 비해 재날림이 좋고 연기발생이 심하며 불이 휘몰아침에 의해 탁월한 요변(窯變)의 효과

토대로 개념정의를 내리고 연구자가 한국도자학 연구에 발표했던 제주옹기 조형성 연구2011 Vol. 7 No.2의 내용을 인용하여 사용하였다.

7) 과거 제주에서는 가마를 “굴”이라고 불렀으며 “노랑굴”은 구원진 그릇들이 “노란색을 띤다”하여 ‘노랑굴’이라 불렀다.

8) 과거 제주옹기는 여럿이 분업화를 통해 작업했는데 건애(물레대장보조), 대장, 불대장 등이 있다.



를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다(오창윤, 2008: 52쪽).

형태적 특징은 제주만의 지닌 환경에 의해 옹기의 형태와 기능을 만들어낸 점이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축적되어온 제주옹기는 형태와 기능 등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발전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점은 제주 버네쿨러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제주옹기의 기형(器形) 중 대표적인 기형은 허벅이다. 허벅은 제주옹기의 상징적인 형태이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그 중에서 물구덕에 물허벅을 넣어 물을 길고 등에 지어 운반하던 기능이 대표적이며 그래서 흔히 ‘물허벅’이라고 한다. 허벅의 형태는 지금의 형태가 아니었고 시간의 흐름에 의해 현재의 허벅의 모습으로 진화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나무로 만들어진 물동이를 이용하여 물을 길어 나르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주 풍토와 합치되었고 현재의 허벅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후 산업화의 영향으로 양철, 고무 등으로 만들어진 허벅모양의 기물로 변화되어 사용하였다. 본래의 기능이 바탕위에 새로운 형태의 재료 및 사용자의 요구가 첨가되면서 버네쿨러 디자인을 만들었고 이런 점은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물허벅은 기능을 토대로 한 구조적이고 기술적인 원리에 충실한 기형이다. 먼 거리에 물을 길어 나르기 위해서는 물이 넘치지 말아야 했고 많은 양의 물을 담기 위해서는 배를 풍만하게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형태가 우선된 것이 아닌 기능에 의해 생겨난 형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허벅은 입부분의 차이로 용도를 구분하며 사용목적(용도)에 따라 다른 크기와 형태를 보인다. 이 크기 차이에 의한 형태의 변화는 크기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사용 목적도 있겠으나 제주인의 삶에 있어 노동을 분업화하려 했던 흔적이며 제주 옹기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처럼 물허벅을 포함한 제주옹기의 형태는 기능

에 따른 기물이라 할 수 있다.

제주문화의 이런 버네쿨러적 모습은 허벅 외에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를 자연을 거역하고는 삶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고 인공적인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런 척박한 땅에 삶에 터전을 잡은 제주인들은 바람부는 땅을 개척하고 격랑의 세월을 이겨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독특한 생활양식과 버네쿨러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중산간 지역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촌항(촌받음물), 통시와 우영, 제주토속건축, 조낭단지,<sup>9)</sup> 제주인의 생활의복이었던 갈옷 등 제주 문화원형에 대부분이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용천수가 없었던 중산간 마을의 식수해결은 냇가의 봉천수와 촌항(촌받음물)이라는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촌받음은 나무에 짚을 엮어 비가 올 때 빗물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물을 담은 항아리를 촌항, 모여진 물을 촌받음물이라 불렀다. 통시와 음식의 식재료를 만들어내던 우영은 직접적인 건축물의 주변에 위치하는 제주초가 구조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통시는 검은 흑돼지를 기르는 곳인 동시에 제주사람들에게는 화장실의 공간, 밭을 비옥하게 할 거름을 만드는 공간인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가 흡수하고 그 돼지를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본래의 기능에서 새로운 형태의 재료 및 사용자의 요구가 첨가되었고 이는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징에서 잘 드러난다.

새마을 운동의 영향으로 가옥의 형태가 초가에서 슬레이트 형태로 변하면서 집집마다 물통을 따로 제작하여 사용한 모습, 전술한 촌항, 통시와 토속건축 사이에서 나타난 공존하는 모습들은 제주문화에서 보여지

9) 조낭단지:고광이란 공간 쌀항아리 옆에 작은 항아리를 두어 조금씩 쌀을 덜어 두었다가 보릿고개(음력3-4월)가 되면 유용하게 사용하던 도구이다.

는 버네쿨러적 모습이며 최근 현대 디자인의 화두로 떠오르는 에코디자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sup>10)</sup> 이런 점에서 제주의 다양한 문화는 의미가 있으며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옹기를 포함한 제주문화 전반에서 나타난 형태, 기능, 색채 등의 다양한 버네쿨러적 요소는 어느 한 시기에 결정된 것이 아닌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제주라는 풍토적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수정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징인 이론적 배경의 결여, 점진성, 전통성, 익명성의 요소가 잘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 2. 제주의 풍토와 화산석

버네쿨러 디자인은 각 지역적 풍토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난 것이며 각 지역마다의 다양한 조형적 특성-본래의 형태(original form)와 특정 지역의 자원(local resources), 이와 관계된 특정기술(local skill)을 볼 수 있고 풍토의 조건에 순응하는 재료의 활용은 버네쿨러 디자인의 물리적인 형태, 색채, 질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정승혜, 권영걸, 2009: 63 쪽). 이런 이유에서 무엇보다 풍토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본 연구의 목적이 제주라는 지역의 문화원형(제주옹기, 화산석)의 활용한 재해석임으로 제주 지역적 풍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풍토(風土)는 한 민족이 살아온 어떤 지역의 기후, 지형, 식생(植生)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리적인 자연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한 현상이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하여 느껴지는 어떤

---

10) 에코디자인: 제품의 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줄이면서 제품 기능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환경 친화 디자인을 말한다.

심리 상태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다(김영기, 1985: 183쪽). 즉, 풍토는 물리적 환경과 주관적 심리상태를 동시에 지시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많은 대상들의 개별적 형태, 색채, 질감과, 자연현상에서 지각되는 다양한 감각과 감정은 인간의 지각 경험 속에서 통합되어 독특한 미의식을 형성시킨다. 모든 사물은 개개의 인간에게 서로 다른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각자의 독특한 지각 방식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인다. 풍토는 이러한 지각 방식에 영향을 주는 원초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모든 조형은 풍토의 바탕 위에서 구축된 것이며, 풍토성은 특정 지역에 사는 특정 민족의 조형의식을 드러나게 하는 바탕이 된다. 이런 점에서 제주의 풍토와 기후는 제주만의 생활양식과 생활공간의 형식을 결정하였으며, 기후의 변화는 형태나 조직이 다른 사회 환경과 공간문화를 만든다. 즉 서로 다른 풍토와 기후대는 서로 다른 특유의 문명을 태동시키는 것이다.

제주도는 한반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연속적인 분화활동의 결과이다.<sup>11)</sup> 분화활동의 결과는 화산회토(火山灰土)의 토양을 만들었고 화산석(현무암)이 제주 전역을 덮게 만들었다.

제주의 화산석은 용암(Magma)이 흘러서 암석이 된 돌로서 화산 쇄설암과 화산 쇄설물로 분류할 수 있다. 용암이 지표에 흘러서 생성된 돌과 용암이 지표로 흘러나올 때 폭발적으로 분출하여 지표에 흘러 굳어진

11) 제주도 지질구조의 형성과정은 기저분출기(基底噴出期), 서귀포층 퇴적기, 용암대지 형성기, 한라산 형성기, 기생화산 활동기 등으로 나뉜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기저현무암류는 용머리의 응회암에 들어있는 현무암편으로 연대는 120만년전이다. 용암대지는 70만년-30만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제주도의 해안 저지대의 대부분을 덮고 있다. 한라산과 중산간 고지대의 평탄면은 30만년-10만년전에, 마지막으로 기생화산은 약 10만년-2만 5천년전에 형성되었다. 이 지질학적 자료외에 1002년과 1007년에 화산활동 2회, 1455년 1570년 지진2회가 있었음이 기록되고 있다(국립제주박물관, 2005: 8쪽).

암석이 대부분 제주도의 지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화산 쇄설암이라 한다. 폭발 후 암석이 쌓여져서 생성된 여러 형태의 오름은 화산 쇄설물로 구분할 수 있다.<sup>12)</sup> 이 화산석은 검은색의 바위가 제일 많고 회색과 붉은 계통의 바위와 돌들이 발견된다. 이것은 화산이 폭발한 후 용암이 냉각되는 상태에서 환원은 검은색, 중성은 회색, 산화는 붉은색 계통으로 나타난 것이다. 현무암의 종류는 크게 구멍이 많은 “곰보돌”과 구멍이 없는 “떡돌”로 구분된다. 또한 대부분이 현무암은 다공질을 이루고 있으며 냉각상태에 따라 다양한 모습과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멍이 많은 다공질의 현무암(玄武巖)은 다른 돌보다 돌 자체가 무르다. 이는 높은 온도의 불에 “곰보돌”을 소성하면 녹아내리는 편이며 “떡돌”은 깨지거나 떨어져 나오는 특성을 보이며<sup>13)</sup> 녹는 융점도 각각의 돌마다 다르다. 또한 제주의 화산석 중에 독특한 “부석”이 있는데 이를 제주에선 “속돌”이라고 부른다. “부석”은 화산이 폭발할 때 마그마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과정에서 압력이 갑자기 감소하면서 마그마 중 휘발성 성분이 빠져 나가서 수많은 구멍이 생긴 돌이다. 이 때문에 겉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부피에 비해 무게가 무척 가볍다. 주먹만 한 돌덩이라도 가벼운 무게감을 느끼게 하며 물보다 비중이 가벼워 물에 뜨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이며 화산활동의 산물인 화산석(현무암)이 제주 전역을 덮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의 문화는 “돌문화”로 설명할 수 있다. “돌의 섬” 제주의 사람들은 돌과 바람으로 인해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12) www.jeju.go.kr.

13) 제주의 전통가마인 돌가마 제작 시 불이 직접 닿는 곳에서는 다공질의 현무암을 이용하여 가마를 제작하였다.

그들은 땅속에 박혀있는 돌을 캐내며 농경지를 넓혀갔고 집을 지었고 인공포구를 만들어 삶을 이어왔으며 식문화 또한 제주의 돌과 함께 형성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제주의 전통가옥인 초가를 만들 때도 돌을 이용했으며 돌로 만든 아궁이를 이용하여 난방과 취사를 해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제주의 돌(현무암)은 제주인들과 함께 살아왔으며 제주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 문화의 발생과 진화는 한국이라는 풍토와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발달해왔다. 제주의 문화역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주라는 독특한 풍토와 고유한 환경에 크게 영향 받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만의 독특한 풍토와 기후적 요인은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하며 더불어 제주만의 버네쿨러 디자인(Vernacular Design)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IV. 제주옹기와 화산석을 활용한 Ceramic Design의 재해석

본 장은 제주 버네쿨러 디자인을 활용한 Ceramic Design의 재해석의 장으로서 제주 베네쿨러 디자인의 산물인 옹기와 제주의 토속성을 담고 있는 화산석을 접목시킨 연구자의 도자디자인을 통하여 새로운 활용성 및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디자인 방향

도자 제품 디자인은 예술적 감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토대로 지역적 환경과 인간친화적인 소재로서 고급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컨셉

선정에 있어 제주의 지역성을 담아낼 수 있는 디자인 모티브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제주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은 섬, 돌하르방, 한라산, 바다, 감귤, 제주흙, 돌, 해녀, 동자석, 정낭 등 아주 다양하다. 이들 중 제주문화를 상징하는 버네쿨러 디자인의 요소를 갖고 있는 제주옹기와 화산석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선정하였다.

본 디자인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제주 화산석(현무암)의 조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살려 도자와 접목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즉 버네쿨러 디자인이 고유한 양식을 이어가는 것처럼 곁은 외래의 것을 수용하면서 안은 전통을 이어간다. 이는 제주의 향수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제주 돌이라는 재료가 주는 촉각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즉 제주 옹기가 가지는 장점인 요소(original Vernacular)와 제주돌(현무암)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제주옹기의 버네쿨러적 요소는 고유한 양식(본연의 제작기법, 소성방법 등)이다. 이 고유한 양식과 사용과정에서의 여러 기능들이 만나서 현재의 옹기가 창조된 것이다. 외형을 새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새로운 양식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다. 버네쿨러 디자인의 고유한 양식을 이어가는 것처럼 곁은 외래의 것을 수용하면서 안은 전통을 이어간다. 제주옹기의 고유한 양식인 제작기법과 소성방법을 이용하고 제주 화산석의 접목으로 조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살린 디자인을 진행한다. 두 요소는 안팎이 다르게 만나는 것은 물론, 의미와 기능, 형식과 내용 등이 다르게 만나게 되고 그 결과 두 요소와 다른 새로운 버네쿨러 디자인을 만들어 낸다.

제주옹기의 장점은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철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흙을 사용하여 자연 발색과 미묘한 온도 차에 의해서 다양한 색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제주 돌(현무암)의 장점은 다공질로 구성

되어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 현무암은 화산활동의 결과물로 돌들마다 다른 다공질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 서로 다른 촉각적 느낌을 전달한다. 이 옹기의 장점을 이용하여 예술적 감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토대로 친환경적인 소재인 제주의 돌(현무암)을 첨가함으로써 도자디자인의 고급화를 이루어 낸다.

버네쿨러 디자인은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통해 오랜 시간을 두고 숙성과정을 거치며 발전되어온 현상이므로 이런 문화전통인 제주옹기가 갖는 고유한 양식과 현무암을 통해 디자인을 진행한다. 이는 제주적 이미지의 표현으로서 토속적, 민속적 모티브를 재현한 버네쿨러적 요소 표현뿐만 아니라 토속적인 정서를 표현하려는 것이다.

단순한 기능의 대상에서 새로운 경험창출의 도구로 재해석해 이차적 버네쿨러의 전통을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수정 보완되는 새로운 형태의 버네쿨러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주옹기가 갖는 장점인 통기성이 탁월하다는 점, 표면 색채가 다양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물 항아리, 쌀 항아리 등의 용도에 맞는 디자인을 한다.

둘째로 제주색을 느낄 수 있는 찻주전자의 디자인이다. 제주 흙은 중국의 자사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소성온도 또한 1200℃로 같다. 이는 최근 일고 있는 중국 보이차의 열풍에 중국 자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도구(茶道具)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돌담을 이용한 합 디자인이며 용도는 합. 차호, 뚜껑 있는 罍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을 제시한다.



## 2. 제작과정 및 시제품

### (1) 제주옹기를 이용한 디자인

<그림 1 >, <그림 2>은 제주 버네쿨러 디자인(Original Vernacular)인 제주옹기와 향토성이 강한 현무암의 갖는 재료의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이다. 연구된 디자인의 특징은 자연적인 재료인 제주 현무암 자체를 제주옹기의 토속성과 접목하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버네쿨러 디자인인 제주옹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의 관점에서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이차적 버네쿨러 옹기 디자인의 전통을 만들고 그것이 확립됨으로서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제작과정은 제주 흙을 이용하여 옹기제작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기물을 제작하고 유약을 바르지 않고 돌가마에 소성하였다. 소성 후 뚜껑 부분을 나무와 현무암을 접목하여 제작하였다.

본 디자인의 성과는 제주옹기의 기능의 확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제주옹기가 쓰임의 기능에서 출발하여 현대에 들어서면서 단순한 미적 감상의 대상이었다며 새로운 경험창출의 도구로 재해석한 제품의 개발로 상품적 가치를 높인 점이라 할 수 있다. 상품적 가치는 제주옹기의 기능을 확장해 새로운 경험창출의 도구인 제품을 통해 제주라는 향수성을 느끼게 하는 도구로서 제시한 것이다. 새로운 경험 창출의 도구는 제품의 손잡이와 뚜껑을 현무암으로 제작해 촉각에서 전달되는 재미와 함께 제주라는 자연을 제품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였다.

제품의 사용자는 디자이너의 이론적 배경 하에 디자인된 사물을 경험함으로써 디자인 심층에 존재하는 버네쿨러적 요소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즉 버네쿨러적 요소는 지역 전통에 대한 직접적인 소재나 문화의 요소만이 아닌 정신적 부분까지 디자인제품에 드러날 수 있다.

### (2) 제주점토와 화산석(부석)을 이용한 찻주전자의 디자인

<그림 3> <그림 4>는 현무암과 제주점토의 자체가공을 통해 재료의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이다.

제작과정은 제주흙을 자체 가공하여 형태를 제작하고 유약을 바르지 않고 가스가마에 소성하였다. 본 디자인의 핵심적인 부분은 현무암과 찻주전자의 결합이다. 돌(현무암)과 옹기의 결합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품을 제작할 때 옹기제품에 돌기를 따로 제작한 후 2차 소성(燒成)하고 돌(현무암)에 구멍을 뚫어 저화도 투명유(870℃)를 이용해 3차 소성(燒成)하여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의 토속적인 느낌과 제주라는 상징성의 표현, 사용에서 촉각적 즐거움 제시를 통해 도자디자인의 가치를 극대화시켰다.

### (3) 돌담의 이미지를 이용한 디자인

<그림 5>는 세계최대의 설치 미술이라 불리는 돌담을 고유의 버네쿨러(Original Vernacular)적 요소로 설정하고 크기의 변화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정형화된 원형위에 자유곡선적인 돌 손잡이를 제작하여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인간 삶에서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였다.

본 디자인의 핵심은 제주흙빛에 제주 현무암의 촉감이다. 색채는 같은 점토를 사용하였음에도 온도 변화를 통해 다른 색채를 표현하였고 돌이 갖는 차갑고 무거운 느낌을 깨고 가볍고 따뜻한 느낌의 제주의 돌은 색다른 경험을 주고 있다.

제작과정은 제주점토와 화산석(부석)을 이용한 찻주전자의 디자인과 같다.

이와 같은 버네쿨러적 요소(제주자연과 제주문화원형)에 대한 도자제

품 디자인은 문화적 특성과 더불어 도자문화의 확산이란 측면, 제품 본연의 기능성과 더불어 기능을 확장한 측면,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제주에 새로운 형태의 도자제품개발이란 면에서 의미가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토속디자인의 개념인 버네쿨러 디자인의 의미와 특성을 알아보고 디자인에 있어 버네쿨러적 요소(제주문화)를 활용한 도자디자인의 재해석을 통해 제주의 도자디자인의 나아가야 할 새로운 대안을 제주 문화의 전통성을 활용한 버네쿨러 디자인(Vernacular Design)에서 찾으려는 목적이 있다.

2000년대 이후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문화 정체성에 관한 담론들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확대, 오리지널리티의 확보 산업자원 가치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디자인은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해야 하며 이를 한국화 시키고 세계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실험을 계속해야만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산업의 꽃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고유문화의 모방, 복제로부터 주체적인 시각에 의한 부단한 문화실험과 자기 혁신을 통해 신 조형문화 전통을 세우는 방향으로 발전해가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버네쿨러 디자인의 의미와 특성을 알아보고 버네쿨러 디자인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주옹기와 화산석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주의 도자디자인의 나아가야 할 새로운 대안을 버네쿨러 디자인적 요소를 갖고 있는 옹기와 화산석을 활용한 도자디자인개발을 통

해 제시하였다.

버네쿨러 디자인(Vernacular Design)의 의미는 지방적, 원시적, 토속적, 작가미상의 자연발생적으로서 비주류, 주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즉 공식적인 계획이나 의식적인 사고가 결핍되어 있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이다. 디자인 생성이 단순히 진행된 것이 아닌 문화, 기후, 풍토 등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진화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연환경과 생활관습을 포함한 문화원형은 다양한 버네쿨러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디자인의 다양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버네쿨러 디자인은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고 이는 디자이너에게 체화된 사회, 문화적 요인이나 풍토적(지리적, 기후적, 지형학적)요인이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과거에는 고유의 문화, 풍토성에만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은 여러 외부적인 버네쿨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이 탄생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주의 전통성, 토속성이 묻어나는 버네쿨러적 도자디자인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시제품의 특징은 우선 현무암을 제품과 결합하여 재료의 차이에서 생기는 대비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경험과 촉각적인 부분을 부각시킨 점이다. 이는 기능에 있어 지금까지 옹기제품이 저장용기라는 기능에 주안점이 있었다면 연구된 시제품은 단순한 기능의 대상에서 새로운 경험창출의 도구로 재해석해 이차적 버네쿨러의 전통을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수정 보완되는 새로운 형태의 버네쿨러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버네쿨러 디자인이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오랜 시간을 두고 숙성과정을 거치며 발전되어온 현상이므로 이런 문화전통은 과거

와 현재, 또 미래로 맥을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연결되는 동태적(動態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의도는 제주문화의 재발견이다. 그동안 정당한 평가를 못한 제주문화의 토속성을 재평가하고 그 맥을 이어가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들이 새로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제주의 도자 디자인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며 과거의 문화가 단순한 과거의 문화적 유산이 아니라 내일의 창조를 위한 밑거름이며 이런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국립제주박물관(2005), 『제주의 역사와 문화』.
- 김동섭(2006), 『제주의 생활과 돌』, 제주돌문화공원.
- 김영기(1985),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 김종균(2008), 『한국디자인사』, 미진사.
- 김지순(1998), 『제주도 음식』, 빛깔 있는 책들.
- 권영걸(2001), 『공간디자인 16강』, 국제.
- 오창윤(2007), 『제주돌가마 축조에 관한연구』, 한국 도자학 연구.
- 오창윤(2008), 『제주돌가마 소성에 관한연구』, 한국 도자학 연구.
- 오창윤(2010), 『제주옹기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
- 오창윤(2011), 『제주옹기 조형성 연구』, 한국 도자학 연구.
- 이경효(1998), 『제주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이희정(1996), 『버네쿨러 디자인의 표현양식과 디자인 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윤석찬 외(1984.), 『옹기는 왜 볼록하게 만들었을까』, 학문사.
- 정승혜, 권영걸(2009), 『버네쿨러 디자인의 풍토적 색채의 관계성 연구』, 한국색채 학회지.
- 제주도(1982), 『제주도지 상(濟州道誌 上)』.
- 허민자(2004), 『북제주군 비지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www.jeju.go.kr

**Abstract**

Reinterpretation of Jeju Vernacular Design  
from the Viewpoint of Ceramic Design  
- Centering on Jeju Onggi and Volcanic Rocks -

Oh, Chang-Yoon\*

The meaning of Vernacular design includes non-mainstream characteristics of local and native aspects whose authorship is unknown, which have occurred spontaneously. That is to say, design which has no official and purposeful plan. The meaning seems to be behind the times, but it has a little clarity which is never found in current design. That's because design is influenced by nature such as culture and climate, and developed into a new form in nature.

Jeju culture is a part of Korean culture but it has its own distinct culture and customs influenced by the Jeju natural environment and historical background. Jeju local culture is inherited by the offspring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in the Jeju natural environment. We can deduce various vernacular designs from the Jeju natural environment and lifestyle.

This thesis aims to find out the meaning of vernacular design and its protocols by examining Jeju Onggi and volcanic rock. This thesis shows a new method and way by which Jeju ceramic design can be understood by analyzing vernacular design.

By using basalt and its unique tactile nature, manufactured goods

---

\*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major cultural formative design, Jeju National University.

were produced with new and important characteristics. This means that while Onggi has been just for saving something, the products I researched will allow for a new interpretation of our experiences as well as creating new experiences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analyzing manufactured products (the object of my research), we can find out from Jeju Onggi, the original vernacular and other vernacular (basalt) engraft, when the second vernacular design is formed.

This goal of my thesis is to rediscover Jeju culture and to reevaluate its significant and distinctive nature. This will allow an important aspect of Korean culture to pass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and thus be preserved. This research can facilitate the continued advancement of Jeju ceramic design. Vernacular design is a dynamic phenomenon which has been developed in the context of a cultural background and will be connected to the future endlessly. In this way, the past culture is not just past culture, but will provide the basis for an ongoing cultural evolution that may one day form a new and distinct culture. I hope this approach will inspire a variety of new studies into how traditional culture influences ceramic design.

#### Key Words

Vernacular Design, local culture, Jeju onggi, volcanic rock, ceramic design

**교신 : 오창윤**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 교수  
 (E-mail : ocy@jejunu.ac.kr 전화 : 064-754-3691

논문투고일 2011. 12. 20.

심사완료일 2012. 02. 01.

계재확정일 2012. 02. 13.





〈그림 1〉 제주옹기를 이용한 디자인



〈그림 2〉 제주옹기를 이용한 디자인



〈그림 3〉 제주점토와 화산석을 이용한 찻주전자 디자인



〈그림 4〉 제주점토와 화산석을 이용한 찻주전자 디자인



〈그림 5〉 돌담 이미지를 이용한 합 디자인